



대한양계협회 소식

양계용 연탄 수요량 관할 동사무에 소신청

무연탄 생산부족과 연료수요 격증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탄부족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양계가들은 관할 동사무소에 수요량을 조속 신청할 것이요망된다. 정부는 연탄부족으로 인한 사전 대책으로 연탄 구매 카드제를 마련하고 가정용 연탄을 청색카드(blue card)로 하여 각

동사무소에 신고하기를 바라고 있다. 양계가들은 육추용 연탄등 수요량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여 연탄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겠는데 황색카드 신청자에게는 앞으로 연탄을 무제한 공급하리라 한다. 한편 대한 양계 협회는 양계가들이 연탄부족 상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부 축산과, 서울시 및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종계장도 등록하도록 축산법 개정 추진

정부는 우량추를 확대 보급 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시설 불비로 인한 불량추의 양산(量産)을 제재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축산법12조를 대폭 개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간 부화장만을 등록하던 것을 종계장도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 부

화업자 및 종계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축산법 3조, 4조, 13조, 15조, 16조, 48조, 49조, 50조, 51조등도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할 예정이다.

안승식 감별사 출국

대한양계협회는 그간 국내감별사의 해외 취업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그간 스페인에 안승식, 홍영만, 조승제, 탁경필, 허만재, 독일에 장재석, 스위스에 유금춘, 박해창, 오스트리아에 홍성재 감별사가 출국한데 이어 6월 27일 스위스에 이동욱, 7월 1일 이용종감별사가 스위스로 7월 4일 전남철 감별사가 스페인으로 각각 출발하여 현지의 현황을 각기 본 협회에 보고해 왔는데 현재 해외 출국을 앞두고 수속중인 감별사는 김희준, 최정균, 김석연, 박홍식, 정국은, 김태명, 심기섭, 박종환, 배영환씨 등인데 수속을 마치는 대로 곧 출국할 예정이다.

전국 기능자 일체 등록

노동청은 전국의 각종 기능 소지자의 유형별 실태를 개별적으로 등록케하여 기능인력 자원을 분석과악함으로써 기능자의 수급 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만14세 부터 60세까지의 전 기능소지자 등록을 74년 7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실시했다. 양계분야에는 조생추 감별사가 이에 해당되는데 학원출신 감별사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관할 시읍면 동사무소에 등록하게 됐다.

감별사 자격시험, 해외파견감별사 선발시험 및 감별사 경진대회 개최

대한양계협회는 오는 8월 12, 13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중로 2가에 있는 해외영어리 감별학원 및 정계천 7가에 위치한 한미영어리 감별학원에서 감종및 고등감별사 자격시험 및 해외파견감별사 자격시험 및 해외파견감별사 선발시험을 개최하고 19

74년 감별사 경진대회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시험에는 감별사의 자질향상과 우수한 감별사를 해외에 파견하기 위해 중견 100수를 8분간에 98%를 감별하던 것을 1분단축해서 7분에 감별하기로 하고 산란계 300수 육용계 200수 감별로 시험하기로 했다.

김종성씨 편집부 기자로

지난 6월 유상철 편집부장이 대한 싸이로로 전임함에 따라 월간양계 편집부에 김종성씨가 입사하게 되었다. 김종성씨는 서울대학교, 농대 축산학과를 1972년도에 졸업하고 군복무를 필한후 월간 양계 편집부 기자로 양계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

농수산부 소식

농사료 생산 및 수매지침 시달

농수산부는 최근의 세계적인 식량사정, 악화로 배합사료 원료인 옥수수, 대두박등의 가격이 크게 앙등되고 있어 외화 流出증가는 물론 국내 축산업에 타격을 받고 있으므로 국내 축산업의 보다 안정된 발전을 위하여 사료자원자급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료적 가치가 우수한 농사료(아카시아, 킴일, 짜티일)를 다량 생산 이용하고자 1974년 농사료 생산 및 수매지침을 시달했는데 농사료 생산 및 수매지침은 아래와 같다.

가, 생산 및 수매계획량 : 1,000%나, 생산 및 수매기간 : 7~9월

다, 방침

- 1) 市道 별로 생산계획물량을 책임 생산한다.
 - 2) 농협 중앙회는 생산량을 전량 수매한다.
 - 3) 사료공장은 수매량을 전량 인수한다.
 - 4) 농촌진흥청은 양질의 농사료를 생산토록 지도 계몽한다.
- 라, 수매 및 인수가격

- 1) 對 농민 수매가격 : 1kg당 40원 (市, 郡 및 邑, 面 수매장소 인수가격)
 - 2) 사료공장 인수가격 : 1kg당 46원
- 마, 생산의욕 제고방법

- 1) 우수도 시상 : 시상금 1,000千원 (3개도)
 - 2) 각도 우수학교 : " 1,440千원 (24個교)
 - 3) 각도 우수새마을 : " 1,440千원 (24개 새마을)
 - 4) 관계공무원 및 단체직원 표창 : 20명
- 바, 농사료의 규격
- 1) 수분 : 15%이하
 - 2) 빛깔 : 청록색 내지 녹색
 - 3) 순도 : 줄기등 이물질이 없는것.



축산업 소득에 관한 1기분 조세감면신청 마감 박두

정부가 축산진흥책의 일환으로 1969년 1월 축산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또는 감면키로 결정되어 본 월간양계 (73. 2월호)를 통해 양계가에게 소개한바 있는데 축산업소득에 대한 1기분 감면신청 기간이 8월 31일까지 이므로 양계가 여러분이 이 신청에 누락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한다. 축산업의 경우에는 세법상 축산업이 영업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업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는 해당되어 소득세법 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면신청기간에 "축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을 관한

세무소에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만일 감면신청 기간내에 감면신청을 안했을 경우는 구제받을 길이 없으므로 양계가들은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도록 해야겠다. 축산업의 조세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월간양계 73년 2월호 (p. 97~99) 74년 5월호 축산업의 경영관리에 (p. 47~48) 자세히 소개되었으므로 참고 했으면 한다.

FAO인공수정조사단내한

F.A.O 인공수정 조사단이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5월 2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에 와 가축개량사업소 및 각 시군인공수정소, 목장 및 유관기관을 조사하고 이한했다. FAO의 인공수정 전문가

Wnsely 박사와 Mcmillan 박사는 가축개량사업 추진기구 개편강화수정사 및 농민교육강화, 종모우의 후대결정 선발강화, 종모우의 후대결정 선발촉구, 일선수정소 및 목장의 기록부족등을 지적하면서 정액제조 분야의 연구는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뉴 육우시범 목장 개장

한국정부와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7월 3일 한뉴 육우 시범목장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개장식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대관령에서 정소영 농수산부장관, D.F. Dunlop 뉴질랜드 대리대사,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는데 이 육우시범목장의 개장으로 산간목초지와 사료작물 생산개선, 육우사양, 번식 및 경영에 있어서의 연구 및 시범지도 육우생산 및 초지개발에 관한 기술훈련등을 실시할 수 있게되었다.

산림계 초생추 판매가격 정상화 하기로



대한 양계협회 부회분과 위원회(위원장: 강근노)는 지난 7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부회분과 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부터 산란용 초생추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고 전 부화업자에 통고했는데 정상화 하기로한 가격은 8월에는 수당 130원, 9월에는 150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부화업계는 적정 가격에

미달되는 가격으로 초생추를 판매하여 곤란을 받아 왔는데 이 가격의 정상화는 이상적인 가격결정은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손실을 커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진다.

※ 정정

지난달 한축산업사의 광고내용중 전화번호 63-2872를 27-0891로, 인의 성분중 8.4를 8.44로 정정합니다.

축산개발센터 설치를 위한 FAO UNDP 조사단 이한

K.K. Iya를 단장으로한 FAO 축산개발센터 설치를 위한 축산관계 전문가 6명이 지난 6월 17일부터 42일동안 한국의 축산조사대상 기관 및 민간업체와 농가를 방문하면서 축산 전반에 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離韓했다. 축산개발센터 설치목적은 극동아시아 지역국가의 축산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동물성단백질공급과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증대, 영농의 다

각화 지역국가간의 무역격차 해소 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참여국 정부의 축산개발계획을 검토 분석하고 정보의 제공과 자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FAO는 장기적으로 축산물 수입을 국내생산으로 대체함으로써 국가간 무역격차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달성을 지원하며 가축생산 및 위생문제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위하여 지역간

협조의 계기를 만들어 주고 단기적인 목적으로는 축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축산개발자금과 연구훈련기관의 자금 통제자금 및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1) 축산개발의 제 문제점을 발굴하고 2) 사업 추진의 지침서를 작성하며 3) 질병, 방역에 대한 지역간에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을 위한 투자는 없으나 이 조사로 참여국에 대한 투자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렌스만씨 이한

체류중 전국순회

양계강습회 개최도

지난 4월 한국 양돈산업의 발전대책 수립자문에 도움이 되고자 내한했던 Lrensman씨는 3개월에 걸쳐 체한(滯韓)하면서 정부, 업계, 농업협동조합은 물론 50여개의 대소 양돈장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전국에 걸친 여덟차례(예산, 대전, 서울, 영동, 김해, 광주, 목포, 전주) 세미나에서 새로운 양돈경영 기법과 생산자 조직문제를 다루고 지난 6월 30일에 한국을 떠났다.

1974년 돈육수출실적

1) 74년 월별 돈육수출실적

구분	월별	1	2	3	4	5	누계
수량		60%	-	83	265	268	676
금액		118	-	170	600	632	1,519

2) 연도별 수출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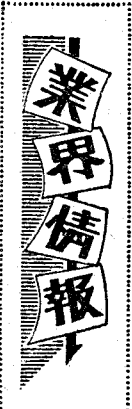
연도	구분		금액
	수량	금액	
'72	3,802%	5,789	
'73	1,819	3,795	
'74	672	1,519	

농수산부 축산정보경 (C)

가장큰 달걀웨스티발

에 라재용씨 출품

북 칠곡군 칠곡면 읍내리에 서 칠곡 종계창을 경영하고 있는 라재용씨는 지난 5월25일 미국산 종계 Hubbard Comet에서 185g의 대란을 생산하여 오는 7.27일 美國 메인주 피츠필드에서 가장 큰 달걀 Festival에 출품. 대한양계협회를 통해 현지로 발송되었다



'74~75년도 미국 옥수수 수출 전년보다 20%감소 현상

유류파동, 육류대체 식품개발, 혹심한 인플레이션 요인은 전세계적으로 축산물 수요감퇴 현상을 몰고왔다. 또한 사료가격상승, 인건비 인상등은 축산물생산비를 크게 오르게 했으나, 축산물가격은 이에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 가격형성은 축산물생산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어 금후의 수요회복에 대처하는 생

산 증강책이 우려되는 바 없지 않다.

세계적으로 일고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1974~75의 사료수요감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옥수수 생산자 협회의 6월 1일 현재 추정에 의하면, 금년 옥수수 생산은 지난해보다 7%가 많은 사상 최고기록인 1억5천 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거나 국내 사료용 수요는 전년보다 4% 수출은 무려 20%가 감소할 예상하고 것으로 있다.

미국 양계업계 손실해결책 정부에 요청

미양계업자들은 최근 농무성 관리들과 가진 회합에서 현재의 극심한 적자J를 감소하기 위한 적극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계업자들의 요청에 의해 마련된 이회의는 현재의 양계업 현황 및 금년 하반기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금년 하반기의 부로일러 생산은 작년보다 2%~3% 감소할

것이나, 시장에 출하되는 부로일러의 평균 체중이 증가함으로써 생산감소가 상쇄될 것이다.

○부로일러는 1년전보다 적육이나 칠면조 고기로부터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육 돈육이 증산되고 가격도 하락할 것이며 칠면조 고기는 9월~12월의 성수기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사료가격은 안전을 되찾겠지만 옥수수가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대두박은 100~125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의에 모인 양계업자 대표들은 ①학교급식용 닭고기 구매를 즉각 시작할 것. ②우육수입을 즉각 중지할 것. ③부로일러 생산을 감소시킬 것 등을 농무성에 요청했다.

미국 종돈수입 감소추세

미국의 종돈 수출은 73년에 6,306두로서 72년의 1만 754두에 비해 41%가 감소했으며 이로서 종돈 수출이 3년간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종돈 수출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73년 종돈 수출 대상국은 멕시코가 제1위로서 1,912두 일본이 2위로 1,440두 등이 있는데 특히 73년중에는 캐나다, 베네주엘라, 도미니카등에 대한 수출이 격감했다 품종별로는 Duroc이 1위로서 2,139두 다

음이 Yorkshire 1,883두 Hampshire 7,151두 등이었다.

미국 농대출신 평균초봉 10%인상.

학사 732달러
석사 900달러
박사 1,225달러

미국 중서부지역의 농대출업생이 받은 73년 월평균 초봉은 학사 732달러 석사 900달러 박사는 1,225달러였으며 74년에는 이보다 5%~10%가 인상되었다고 Kansas 주립대학 농대학장 Carlo-H Hess 박사가 말했다. 중서부

지역의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밝혀진 이상과 같은 농대출신 모임은 미국의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대생들이 갖는 직장은 농산물의 판매 및 회사경영을 포함하는 농업비즈니스적이 가장 많고 다음이 농사실무, 전문적 농장학교 교사, 식품가공농업관계 언론기관, 사료제동등 순서이다.

한편 중서부지역에서는 농대출업생 1명당 직장은 1.5의 비율로 일자리가 많아 농대출업생들의 취직걱정은 없다고 한다.

대한사료 부로일러 요리강습회

대한사료(주) (대표: 김시호)는 부로일러 소비 촉진책의 일환으로 매월 4회에 걸쳐 대한 부로일러공장 식당에서 요리강습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미 첫번째 요리강습회는 7월 10일에 개최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계속적으로 강습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닭고기 요리 강습회는 한국식생활 개발 연구소장 왕준연 여사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연인원 2,000명 이상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열 예정인데 닭고기 소비 일환으로 많은 공헌을 할 것이 기대된다. 닭고기 요리 강습

회에서는 푸라이치킨, 닭냉채, 꼬치구이, 삼계탕, 치킨카레, 탕수육 등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퓨리나가 지도하는 모범양계장 견학

*퓨리나사료(주)는 지난 7월 20일(토) 축산관계인사를 초청 퓨리나가 현재 기술지도하는 모범양계장인 흥아농장과 삼양원을 직접견학할 예정이었으나 우천관계로 내자호텔 회의실에서 모범양계장의 운영실적을 기술 경영지도의 성과기록과 슬라이드 상영을 곁들여 소개했다. 이날 초청된 인사는 농수산부 경기도청, 서울시, 사료협회, 양계협회 학계, 영양관계 연구관등과 축산잡지 기자들을 포함, 32명이 참석했는데 퓨리나 김영석 영업부장은 인사에서 「퓨리나 사업운영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산 제품을 싸게 공급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하면 양축가가 보다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나에 있다면서 상대방에 수익을 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성적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근대산업의 기본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계산업을 설명한 이현범 기술부장은 양축가를 위한 기술지도 서비스란 노동력 지원, 외상공급 제품의 가격절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판매경쟁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불과하고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란 가축의 생산성을 경제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행위, 경영을 사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말하고, 모범양계장 대표들의 체험담도 들려 주었다. 이어서 슬라이드 상영이 있던 후 컵테일 파티와 식사를 베풀었다.

정시험이 실시된다. 이때 수패지가 없으면 효과를 볼 수 없으나 이 약제를 2초정도 뿌리면 암돼지가 발정해서 인공 또는 자연방법으로 암돼지가 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된것을 확실한 알수 있었다. 이 약제는 확실히 시험결과를 얻은 것으로 인공적으로 임신율을 높여 발정과정에서는 수패지가 필요없다. 약제는 80g들이 에어토솔 용기에 들어있다. 이것은 40마리분의 양이다.

녹십자 수의약품 개발

국내 우수약품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 녹십자 수의약품주식회사(대표: 허정섭)는 영구「웰컴」사의 신제품 아미줄 주사액과 록손 분말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아미줄 주사액은 100ml의 포장으로 푸라스마(진드기열)의 예방치료제이며 록손분말은 50mg 포장으로 중대동물용 강력 구충제이다. 한편 녹십자 주식회사는 제품이 다양화되어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전 중앙약품 영업과장이었던 이충범(서울대졸)씨를 서울지구 영업부 계장으로, 전 한미제약 영업부장 추병수(서울대졸)씨를 경남북 출장소장으로 발령하여 업무를 보강했다.

영국에서 돼지 발정제 완성

영국의 제이스 애니멀 헬스는 최근 돼지 임신을 인공적으로 높이는 새 약제를 개발했다. 새 약은 영국연구개발공사와 식육가축 위원회가 공동으로 5년 연구 끝에 개발한 것인데 이것은 암돼지 있는 곳에 숫돼지가 내

는 糞氣物과 같은 합성 스테로이드이다. 이 약제의 냄새가 발정한 암돼지를 자극하는 작용을 한다. 발정이 보여질때 (보통은 작은돼지가 젖을 땀지 4~5 개월 뒤 또 작은 돼지가 6개월 정도 났을때)보통 백프레서에 의한 수

코브농장 업존과 제휴



미국 화이자가 미트닉을 인수, 멜크가 하바드와 업존이 코브와의 제휴 등 대자본이 닭의 육종 자금원으로

벌써부터 세계적인 육종회사는 다섯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구미의 육종계로부터 전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르러 이를 마치 뒷바침이나 한듯이 세계적인 육종회사의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다. 육종사업에는 방대한 자금이 소요된다고들 하는데 그런 뜻에서는 옥수수의 육종회사인 “테칼브”나 “하이라인”이 거대한 자금력을 갖춘 육종회사 였는데 그후엔 대단위 곡물상인 “카-길”이 “세이버”를 유명한 「록펠러」가 “아바에카”를, 영국의 「로스」구름이 “찬키”를, 화란의 「유리브리드」가 “필취”를, 이렇게 대자본이 닭의 육종의 자금원(資金源)이 되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H&N(미트닉 니치)을 미국의 화이자가 매수한 것을 계기로 대형 계약자본이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금년들어 멜크가 하바드를 그리고 업존이 코브와 제휴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다음엔 바브록이 어디와 제휴할 것인가가 흥미거리가 될 정도로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대자본에 의하여 세계의 주요 육종회사는 각각 자금의 뒷바침을 받고 각기의 영역을 확고히 하는 단계에 접어들은 것 같다. 이번에 밝혀진 미국 대 계약회사인 업존사는 연간 매출이 64억불이며 그중 약 10%가 농업부문의 판매라고 한다. 코브와의 제휴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미 기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합의를 보았으며 늦어도 금년 8월 1일 경에는 코브는 업존의 자금 부문으로써 코브의 경영진과 기술등 일체가 인제되어 출범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위에

대하여 관계자는 “코브는 세계 40개국에 후란차이즈와 디스트리뷰터(태국), 조인트 벤처(일본)를 갖고 있으며 출하 수수가 많아 집에 따라 연구개발비, 매관경비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코브가 갖고 있었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정도였으나 H&N가 화이자, 필치가 유리브리드 하바드가 멜크와 제휴함에 이르러 육종업의 장래를 생각하여 보다 큰 돈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약품회사가 진출하여 오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일이 성사가 된 것 같다. 코브는 하바드와 같은 이유로 즉적자경영 때문이 아니고 시장 점유율도 매년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금후의 육종의 방향으로써 제휴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 화이자, 멜크, 업존 등 대 계약자본이 업체에 진출하기까지의 배경은 여러가지로 추측이 되나,

1. 세계의 동물 단백질 식품시장이 매우 장래성이 있다.
2. 닭은 사료연구를 등으로 볼 때 경제성이 높다.
3. 동구 공산권 시장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 미개척 시장이 많다.
4. 식품 유통부문이 거대하고, 이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있고 동물뿐 아니라 첨가제 기타 식품분야에서의 약품관계의 판매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 부화업계 경영난

계절적으로 비수요기라고는 하지만 요즈음 일본의 각 부화장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병아리와 주머니 줄어들어 부화한 병아리가 팔리지 않아 고충을 겪고 있다. 공여지책으로 종계장에서 나온 종란을 식란으로 처분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낡은 편이라고 한다. 산란계 초생추를 육계용으로 쓰려면 육계전용 종처럼 빨리 자라지 않거나와

사료비가 비싼 요즈음과 같이 전용종도 채산이 맞지 않는 판국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공여지책으로 초생추를 돼지에 먹이던가 땅속에 파묻어 버리게 되지만 이것도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 결국 그양주든가 덩핑을 하게 된다. 웃지못할 이야기지만 도 양계전문가는 최근 수년간에 병아리를 현금주고 사본있이 한번도 없다고 한다. 믿어지지 않는 않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이런 덩핑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병아리에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뉴켄슬과 같은 질병의 피해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와 작은 덩핑으로 양계가는 부화장측의 무모한 덩핑에 맞들여 이를 기다리거나 병아리사기를 거절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여러가지 어려운환경조건으로 부화를 하고 있는 부화장은 도산 또는 폐업의 상태에 이르렀다 하다. 현재 이런 싼가격 때문에 일부 부화장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